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 데살로니가전서 5:18 )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2015년 신년 메시지

# 먼저 해야 할 일

마태복음 6:33

조중래목사 ( 총회장 , 후나바시교회 )



201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저 사람 천 날 만 날 동일하다’ 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발전과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이 필  
수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함과 같습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성숙합니다.

이 본문은 성도의 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란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며, 긴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인  
생의 삶에 있어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입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염려하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만이 아니라  
성도도, 심지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신의 양심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의식주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해야 할 일이 ‘그의 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함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사람  
에게 필요한 것은 빵도 물도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건져  
살려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전자  
의 발전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미래가  
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  
워 졌으며 말세는 엄청난 재난과 함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  
고,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종말이 올 것이니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  
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  
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  
해야 함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생의 나라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구원하는 일이 급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날이 비록 아직이라고 해도 개인의 종말은  
언제 닥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암과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리라 누가 알  
았겠습니까? 그래도 투병을 하면서 저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개인의 마지막 시간도 도  
적같이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우선인  
것입니다.

다음은 ‘의’ 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닌, 은밀히 보시  
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외식이 아닌 삶입니다. 선한 삶입  
니다. 즉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 멸망의  
원인은 군대의 약함, 가난, 정치의 부재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도  
덕적 부패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의인 몇 사람이 없어  
멸망했듯이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힘 쓰라. 노력  
하라’ 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힘 쓰고 노력함입니다. 세  
상에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어디에 있나요? 사탄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명 구원과 의’ 를 행하는 일에 영적 무장을 하고 힘 쓰  
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십  
니다. 공생애 전 40일간 금식했을 때 그 주님이 어떠한지 체험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채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먼저 ‘구원과 의’ 를 행  
하는 일에 힘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  
다음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먹여 주셨던 것처  
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더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너희는' 입니다. 3인칭이 아닙니다. '나' 입니다. 생명 구원의 일은 '내' 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 역시 '내' 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면 문제의 핵심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달리 하는 자는 모두 악한 자라 정죄합니다. 변화의 우선은 '나' 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의를 말한다면 누가 변화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면 교회가, 이웃이,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 해 달라' 고 기도 하셨습니다. 강도가 바뀌고, 제자들과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너는' 의 뜻입니다.

함께 동역자 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힘써야 할 핵심적인 일이며, 제자 된 자가 힘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총회와 이 민족, 조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의를 잊지 말고 힘써 일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2015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새해에 주님 은혜로 가정에는 웃음, 영육에는 강건, 산업에는 번영, 교회에는 평안과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정과 사과 >

2014년 12월호 6면에 게재 된 오카야마교회 김승희목사 위임식 기사 타이틀이 <서남지방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부지방회로> 정정하며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복음신문 1000 부 발행 안내와 각 교회 부수 변경 안내 >

지난 2014년 까지 복음신문이 2,000부를 발행 해 오면서 일본 각 교회와 전국 총회 산하 교회에 문서 선교와 기관지의 역할을 감당 해 왔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는 1,000 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각 교회에 배달 된 부수에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 일본 / 재일 3 교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4년 10월 7일과 8일, 히로시마에서 한국, 일본, 재일 3 교회의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외기협과 한국 NCC가 주최하는데 금번은 제 17 회로 한국 교회에서 16명, 일본과 재일 교회에서 55명이 참가하였다.

개회예배와 기조보고는 "한일 조약으로부터 49년 : 일본 정부, 사회, 교회의 현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날 주제강연은 "일본헌배외주의"를 집필 한 히구치 나오토 (樋口直人, 徳島大学) 교수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하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전달 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활동과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제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오야목사 (大矢直人, 일본 침례교 연맹) "일본의 이민자와 다문화교회", 허백기목사 (KCCJ) "헤이트 스피치와 재일 한국 교회", 우삼열목사 (한국 NCC)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의 과제", 요시타카목사 (吉高 岬, 일본 침례교 연맹) "만약 창조적으로 살고 싶다면 죄책적으로 살자", 김성원장로 (KCCJ)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에의 제언", 히다관장 (飛田雄一, 코베 학생 청년 센터)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의 현재", 이영목사 (한국 NCC) "이주민과 교회의 선교과제", 김재원청년 "청년 여행 (총 5회) 에서 배운 것" 등이다.

둘째 날은 김규복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주민 선교협의회 공동대표)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하였다. 김목사는 동북 아시아의 역사와 현재의 정세, 일본과 미국의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화해와 평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들을 제언하였다.

한국과 일본과 재일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화해와 평화가 퍼져 나갈 것을 소원하면서 행동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심포지엄이었다.

(보고 : 김재원)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子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 ¥200 (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06-6981-0782

# 제 17 회 한국 일본 재일 교회 국제 심포지엄 공동 성명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우리 한국, 일본, 재일 그리스도인들은 2014 년 10 월 7~8 일,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기원을 체현(體現)할 수 있는 일본 히로시마시 국제 청년회관 아스텔 플라자 및 일본 침례교 연맹 히로시마 그리스도교회에서 “미래에의 책임 :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 일본, 재일, 한국 교회의 공동 과제를 히로시마에서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제 17 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과격하게 대립하고,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미국의 패권으로 인하여 흔들거리는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보수 정권에 의해 역사 왜곡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재군비화 및 미군의 재배치와 강화 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협하면서 잔학한 전쟁으로 달려가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배외주의적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편협한 국수주의에 근거한 차별적, 배외주의적인 담론이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확산되어 인권보호 활동들에 대한 협박과 ‘헤이트 스피치’ 라는 차별적 선동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이미 양국이 비준 한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서 명확하게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각각 국내에서의 차별 금지법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적 언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제도 개선과 인종 차별의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폭력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심화와 공유를 급속히 소실하고 있으며, 근린 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며, 그것이 외국인 주민, 특히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만연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와 한일 양국의 상황에 대하여 한국, 일본, 재일 교회에 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기도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증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폭력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화해와 신뢰가 실현하는 미래로 함께 걸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일본, 재일 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활동 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

1. 우리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확산되어 가는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 쓰임 받기를 요구하며, “과수꾼” 역할을 다한다.
2.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인종 차별 금지법” 을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 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 가는 교회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재일 교회가 서로 만나서 역사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 보장이 복음 선교임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과 재일 그리스도인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제 18 회 국제 심포지엄을 2016 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4 년 10 월 8 일



一歩一歩 クリスチャン探し・企業検索サイト  
**レホボト・ジャパン**  
 Christian Calling Search Site  
<http://www.rehoboth.jp>  
 Tel 090-3845-3373  
 e-mail info@rehoboth.jp  
 住所 兵庫県芦屋市朝日 10-35-100  
 レホボトジャパン 検索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올라프 트베이트 WCC 총무 방일> KCCJ 와의 협의회를 가져



2014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인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박사가 안나 부인과 WCC 스태프인 김동성목사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8월에 예정되었으나 본인의 건강 문제로 취소된 방일을 3일부터 6일까지 재일본한국 YMCA에서 개최된 “9조 세계종교사회의”에 참가와 더불어 다시 설정된 것이다.

이것은 8월의 장상 WCC 아시아 회장의 방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WCC 대표자 방문이 되며, 이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배경에는 우경화의 재군비화, 헌법 9조 개정, 야스쿠니신사 문제와 아시아 각 나라들과의 갈등, 원전 추진노선 견지 등 세계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위험한 노선을 달리는 아베정권에 대하여 “세계기독교회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WCC 현지 총무가 일본을 방문하는 일은 실로 15년 만의 일이다.

트베이트 총무는 회의 중 자신의 강연에서 일본국 헌법 9조를 “체석장에서 깎아내고 일부에 아름다운 조각이 이미 새겨졌지만 한 쪽은 아직 다듬어져 있지 않은 채 누워 있는 미완성인 돌 기둥”에 비유하면서 “헌법 9조는 파괴적인 전쟁 후에 이루어진 건설적인 성과이며,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으나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세계의 기둥으로 세우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트베이트 총무와 그 일행은 체재기간 중 교토와 센다이 방문하였다. 교토에서는 예배 설교와 강연, 관서지역 에큐메니컬 네트워크가 주최한 리셉션에 출석하였으며, 센다이에서는 피해지역의 상황을 시찰,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토에서는 교토교회 유정근 장로와 임명기 목사가 접대역을 담당하여, KCCJ와 교토교회 역사를 프레젠테이션하면서 교토교회 여성회가 손수 만든 점심으로 대접하였다.

또 동경에서는 귀국 전 날인 12월 9일에, 김성제 부총회장과 김병호 총간사가 아오야마 가이엔에서 일행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헤이트 스피치를 비롯한 일본의 마이노리티 상황을 설명하고,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3회 “마이노리티 문제와 국제회의”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보고 : 허백기)

## <아크라 신앙고백 10주년> 대만에서 신학 협의회 개최

2014년 9월 8일부터 12일 동안 대만 타이페이에서 아크라 신앙고백 10주년을 기념하는 신학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WCRC(세계개혁교회공동체)의 NEAAC(동북아시아부회) 안에서 이루어진 행사이다. 아크라 신앙고백이란 가나공화국의 아크라에서 2004년에 개최된 WARC(당시) 총회에서 채택된 신앙고백문으로, 세계의 폭력과 부정, 그리고 환경문제 등과 씨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언급한 신앙고백문이다.

아크라 신앙고백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WCRC에 의해 지역 신학협의회가 열리고 각 지역마다 성명문과 총대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성명문에 의해서 각 지역 대표들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전체 신학협의회(11월)에 각 지역 총대가 모이도록 되어 있다. 대만 장로교회(PCT)가 호스트 역할을 맡은 동북아시아부회 신학협의회에 일본에서는 재일대한국교회와 일본기독교교회(CCJ), 홍콩에서는 중화기독교교회 홍콩구회(HKCCCC), 한국에서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P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PROK) 및 하노버에서 온 WCRC 스태프와 필리핀에서 참가한 WCC 어드바이저가 참여했다.



먼저 각 나라의 사회와 교회 상황을 공유한 다음, 참가자들이 발제와 강연으로 이어졌다.

5일 간의 협의회는 성명문 작성 작업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때로는 내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CCJ와 KCCJ의 강한 의지로 인하여 성명문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화,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와 한/중/일 간에 관계 악화, 헤이트 스피치 문제, 반핵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노버에서의 신학협의회 본회에는 PCT의 Joshua Lian(連振翔) 전도사를 동북아시아부회에서 파송하기로 하였다. PCT의 멋진 대접과 강력한 조직력, 그리고 대만 요리의 묘미와 타이페이 길거리의 정취가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여정이었다.

(보고 : 허백기 목사)